

# 간호대학 여학생들의 휴학경험

신헌태<sup>1</sup> · 안효자<sup>2</sup>

동신대학교 한의예과<sup>1</sup>, 동신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Shin, Heon Tae<sup>1</sup> · An, Hyo Ja<sup>2</sup>

<sup>1</sup>Korean Traditional Medical Department, Dongshin University, Naju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op-out experiences of female nursing students. Stop-out is defined as the withdrawal temporarily from enrollment at a university. **Method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from February 2013 to February 2014 (N=8) and analyzed with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once or twice, for 30minutes to 1hour per interview. **Results:** Five theme-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14 themes. The theme-clusters were 'Craving for self-directed life', 'Anxiety about leaving regular orbit', 'Responsibility for selection of the stop-out', 'Reinvention of self and nursing major', and 'Making of mental power'.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op-ou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is study has positive aspects in craving for self-directed life and challenges to live a new life. Therefore research is needed on various angles in studying stop-out experience as well as balanc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lso it is suggested that continuous managements should be given to the students during stop-out period.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Stop-out, Nursing student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학업중단을 의미하는 중도탈락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년제 중도탈락 학생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비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더 심각하다[1]. 학업중단의 증가는 직업획득 및 사회경제적 보상의 지연, 편입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시간의 필요, 잠재적 졸업자의 상실, 학교 재정난 가중[2,3]

등으로 개인, 학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도탈락은 퇴학(drop-out), 휴학(stop-out) 및 전출(transfer)을 포괄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4], 휴학도 중도탈락의 한 형태로 분류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3,5]. 한편 또 다른 연구[6]에서 휴학을 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학기 이상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퇴학이나 전출과 구별하였다.

최근 들어 휴학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대학생들의 39.3%가 휴학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휴학의 주된 원인

**주요어:** 질적 연구, 휴학, 간호학생

**Corresponding author: An, Hyo Ja**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520-714, Korea.  
Tel: +82-61-330-3586, Fax: +82-61-330-3580, E-mail: callm68@hanmail.net

Received: Jul 30, 2014 | Revised: Sep 11, 2014 | Accepted: Sep 26,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은 주로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그리고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등이 이유이며, 그 중에서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7,8]. 휴학의 다른 원인에는 전공적성, 학습태도, 대학생 활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 개인흥미요인, 대학시설만족도,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유능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사회적 지지,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 간의 일치여부 등이 있었다[2,5,9-12]. 선행연구[13]에서 휴학한 사유에 따라서 긍정적 휴학과 부정적 휴학으로 구분하였는데, 긍정적 휴학은 어학연수 및 해외여행, 편입학 및 재수 준비, 자격증 및 고시 준비, 부정적 휴학은 경제적인 이유, 취업, 건강상 이유, 심리적 정신적 이유, 학습부진 등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휴학과 같은 목표가 뚜렷한 경우에는 휴학의 만족도가 높고 구직성과에도 긍정적인 반면, 휴학의 이유가 분명치 않거나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한 경우에는 휴학의 만족도가 낮고 후회하는 경향이 높고 구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5].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의 증가로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의 성향, 적성, 비전, 사회적 기여도, 자기실현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 가능성 또는 수월성에 비중을 높게 두게 되면서 최근 간호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학과 선택도 있지만 높은 취업률로 주변인들에 의한 비자발적인 선택 또한 많은 편이다. 취업난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졸업 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를 입학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자기통제 실패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12,16]. 대학생에게 자기통제 능력은 대인관계 기술, 과제 성취,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최근 들어, 간호학과에 남학생이 증가했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병역이라는 자연스러운 휴학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휴학을 결심하고 결정내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휴학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학과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휴학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으로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19]. 따라서 간호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생과 관련된 휴학 정도, 휴학의 원인, 휴학 관련 경험 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간호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20,21]. 국외의 경우 간호학생의 중도탈락의 원인을 입학의 동기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과 학업성취의 실패로 보았고[12,20],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학 시 학생선발과정의 적절성과 교수들의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중도탈락 조기발견과 학생지원시스템을 강조하였다[12,21].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의 중도탈락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간주하여[12], 간호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호학생의 휴학에 대한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휴학경험이 있는 복학생을 대상으로 휴학 전후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생생한 경험에 의미를 밝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휴학에 따른 일련의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경험하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휴학을 고려하는 간호학생의 상담과 지도 및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내용을 이용한 것은 현상학적 연구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구조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으로서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 [23]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J도 소재 1개 대학에 휴학 후 복학한 간호학생들로, 휴학한 지 1년 이내이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듣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 8명이었다. 참여자 모두 여학생이고 5명은 3학년 임상 실습 나가기 전에 휴학을 했고, 3명은 3학년 과정 중에 휴학을 하였다. 휴학은 처음부터 1년 정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참여자의 경험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의미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론과 철학을 이수하였으며, 학회지에 질적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 질적 학회와 국내 질적 연구회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및 자료분석방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휴학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지 반추해 보았다.

###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본 대학 부속병원이 G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2-11)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녹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호로 언급하였다.

###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부터 임의표집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2014년 2월까지였다. 첫 만남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를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나눠주어 다음번 만날 때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휴학결심 직전(7문항), 휴학동안(4문항), 복학(4문항), 기타(3문항)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당신의 휴학경험은 무엇입니까?”이며 구체적인 질문은 휴학결심 직전에는 “언제 휴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혹 무슨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휴학을 하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휴학과 관련하여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주저가 되었는지”, “휴학을 결심했을 때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었는지”, “그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휴학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이었다. 다음으로 휴학동안과 관련된 질문은 “휴학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휴학 동안 어떤 심정이었는가”, “휴학 동안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는가”, “그들을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는가”, 복학 관련 질문은 “복학 계기는 무엇인가”, “복학 결심은 언제 하였는가”, “복학을 하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복학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 기타 관련 질문은 “휴학으로 인한 단점은 무엇인가”, “휴학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인가”, “휴학을 결심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이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면담은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2개의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보통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정도였고 참여자 1명당 면담 1~2회가 수행되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1명당 A4용지 5~14장으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녹음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사된 내용을 보면서 의미 있는 문장은 대상자-페이지-의미문장(예, 1-2-3) 순으로 번호를 배정하였다. 모든 녹취와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 ‘휴학경험’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연구 종료 후 폐기처분 할 것이다.

### 6. 자료분석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Colaizzi [22]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근거로 다음의 7단계로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녹음한 모든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듣고 필사하여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으로써, 총 192개의 진술이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 3단계에서는 2단계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43개의 의미단위 문장을 형성하여 하위주제(sub-theme)로 분류하였고 그 안에서 의미의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분류하여 조직하였으며, 이를 통해 17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하위주제, 주제, 주제모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면서 경험의 전체적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조사된 현상의 근본적 구조를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기술하면서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7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봄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자료가 ‘포화될 수준까지’ 분석을 계속하여 새롭게 나온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재확인된 내용을 통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 [23]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휴학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각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주제모음, 주제 그리고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자 6인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면담을 통해서 휴학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휴학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의 적용성(applicability)을 위해 휴학경험에 대한 참여자간의 개별 인식 차이 및 맥락상의 차이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 개개인의 독특한 배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학경험은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간호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인의 휴학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험을 A4용지 한 장 정도 보내왔고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방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명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에 본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감수를 받았다. 감수를 통해 주제모음과 주제에서 중복되는 표현상의 문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본 연구의 함의, 주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들 간에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 대한 토

의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였다.

## 연구결과

참여자의 휴학 촉발 원인으로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많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였다. 휴학에 대한 갈등은 저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 여름방학과 2학년 초에 시작되었고 최종 결정은 3학년 실습 나가기 전 2학년 겨울방학에 많았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 다음 방학에 있었다. 휴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가족과 친구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였고, 휴학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휴학과 복학에 대한 일련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하위주제 43개, 주제 14개, 주제모음 5개가 도출되었으며 (Table 1), 주제모음으로는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 ‘정규제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 ‘휴학선택에 대한 책임감’,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 ‘심력(心力)이 생김’으로 확인되었다.

### 1.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

참여자들은 입학 초기에는 학교와 학과의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점차적으로 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깊게 생각하게 된다. 휴학결심은 충분히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회의감과 자기계발서를 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작용한 결과였다. 참여자들은 전공,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였다.

#### 1) 선택에 대한 재숙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취업과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대학교 원서 쓸 때 제가 원해서 쓴 게 아니라서 간호학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었고 그러다보니 1학년 때부터 00랑 휴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간호학과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휴학을 할지 갈등하고 있었어요(1-1-1). 제가 그냥 아 좀 취업을 위해 우선 갈 길

**Table 1.** Contents of Tailored Drug Side Effect Management Program using Video

| Sessions | Topics (goal)  | Contents  | Methods  |
|----------|--|---|--|
| 1        | Orientation of the progra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gram guidance</li> <li>· Introducing the goals, progress, sessional contents, general processing, and making rules of the group</li> <li>· Pretest</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nation</li> <li>· Pretest</li> <li>· Questionnaires</li> </ul>                   |
| 2        | Understanding the antipsychotic drugs (promotion of medication adher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 does drugs medicate?</li> <li>· Understanding the advantage, importance, information of drugs</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visual education</li> <li>· Explanation</li> <li>· Presentation</li> </ul>      |
| 3        | Right self-medication and evaluation method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ing the method of right self-medication, evaluation of physical response, reason of the medication</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visual education</li> <li>· Group discussion</li> <li>· Presentation</li> </ul> |
| 4        | Understanding the side effects of antipsychotics,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promotion of medication attitu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ing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li> <li>· Expressing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each other</li> <li>·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visual education</li> <li>· Group discussion</li> <li>· Presentation</li> </ul> |
| 5        |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1)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ing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dry mouth, constipation, sedation)</li> <li>·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visual education</li> <li>· Group discussion</li> <li>· Presentation</li> </ul> |
| 6        |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2)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ing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extrapyramidal symptoms)</li> <li>·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visual education</li> <li>· Group discussion</li> <li>· Presentation</li> </ul> |
| 7        |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3)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ing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dyspepsia, dizziness, weight gain)</li> <li>·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o-visual education</li> <li>· Group discussion</li> <li>· Presentation</li> </ul> |
| 8        | Counselling of drug and finishing ceremony (promotion & planing of self-management ability, medication attitude, medication adher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cognizing the side effect of drugs</li> <li>· Planning of the effective management,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and applying and encouraging</li> <li>· Post-test</li> <li>· Sharing each other's feeling</li> <li>· Finishing ceremony</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unselling</li> <li>· Evaluation</li> <li>· Questionnaires</li> </ul>                |

이 딱히 없으니까 선택하자 해서 온 길이거든요(2-1-9).

의 삶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였다.

## 2)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자각하고 삶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이 정체성을 찾고 자신

자기개발서에서 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원하는 길을 확실하게 찾아라, 그런 거 읽으면서 아 그대 내가 좀 시간을 갖고 잠깐 멈췄다 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고 생각했어요(2-1-8). 처음부터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학교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것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내 의지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떠보니 스무 살이 되어 있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나도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물어두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4-2-5).

## 2. 정규제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들은 간호학도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이 좋지 않거나 대인관계가 소원해지면 휴학을 심리적 도피처로 생각하였다. 심리적 불안은 휴학을 결심하는 과정과 휴학동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휴학을 결심하기 전에는 전공과 친구관계의 부적응, 그리고 휴학으로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이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 그리고 휴학 동안에도 학교적응에 실패한 문제이라는 주변인의 시선이 불안감을 초래하였다.

### 1) 전공에 대한 과부하

전공 선택에 대한 회의감과 흥미상실 상태에서 학업량의 과중과 성적 또한 떨어지면서 전공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다.

어떤 걸 제가 확실히 원하는지 모르고 솔직히 또 공부가 쉬우면 그냥 했을 텐데 어렵다 보니까 아 왜 해야 되지 하고,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가치를 못 느꼈어요(2-1-3). 4학년 때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들 텐데, 제가 못 버티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5-1-4).

### 2) 힘겨운 친구관계

학교생활을 버티게 했던 주요한 요인으로 친구 또는 선후배 간의 친밀감인데, 이러한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소원해지면 심리적인 불편감이 증가하면서 휴학으로 도피하고자 하였다.

근데 학교에 와서 친구관계에 좀 적응을 잘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다르고, 두루두루 친한 게 아니고, 다 무리가 형성되어있고. 이런 게 좀(중략). 아무래도 휴학을 결정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3-1-6). 학과 생활하는데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 애들이랑 좀 더 서운한 게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 때문에 참고 무시해오다가 확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8-1-2).

### 3) 불확실한 미래

휴학을 결심했지만 휴학이 반드시 좋을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휴학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이 늦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랑 같이 올라가는 게 좋고, 제가 휴학을 마음먹었을 때 친척언니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대학교를 다시 다니다보니 친구들에 비해 사회생활, 결혼 등 모든 것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그 때 들었어요(1-2-4). 1년 쉬면 나중에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1년 뒤가 더 나아질까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나를 가장 많이 주저하게 했어요(5-2-5).

### 4) 주변의 불편한 시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휴학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휴학 동안 계획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휴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하였다. 또한 휴학은 학교적응에 실패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주변인들의 편견으로 참여자들을 문제가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

제가 휴학하니까 마치 집안의 문제아처럼 인식이 된 거 같아요. 엄마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휴학했다고 말하고, 명절에도 친척들이 ‘oo야, 괜찮니?’하고 하면서 진 정말 행복한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었어요(1-2-5).

## 3. 휴학 선택에 대한 책임감

휴학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반대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휴학에 대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휴학기간 동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1) 휴학 선택에 대한 부담

휴학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녀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상 휴학을 했지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였고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다.

부모님이 걱정하셨는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제가 이제 다 조종해야 되는 거잖아요(2-6-5).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도 없었고, 저 스스로 결정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휴학한 시간동안에 계획한 것을 다 알차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3-2-6).

## 2) 휴학의 정당성 찾기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과를 도출하고자 휴학동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나름 가치를 부여하여 휴학의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당차게 휴학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하지만 재능이 저걸 할 동안 나도 나한테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를……(3-2-8). 해외봉사를 나가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해외봉사를 지원했는데 어렵더라고요, 해외봉사도 요즘 하나의 스펙이 되다 보니깐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봉사를 계속 다녔어요(8-4-1).

## 4.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

휴학동안 다른 학과의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부러움과 상대적으로 취업걱정 없는 간호학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간호학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간호사로서의 적성을 발견하였고, 졸업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 임상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 1) 학생신분에 대한 그리움

간호학생들은 휴학동안 대부분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곳에서 타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 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대학생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생겼다.

같이 알바 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라서 리포트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부러운데 취업걱정 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너무 여유부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제가 리

포트 하는 걸 좋아해서 리포트 하는 게 부러웠어요. 그냥 리포트 하는 것 자체가 학생다워서 좋아요(1-5-3). 이제 까지 제가 몰랐던 일들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있었던 일들 말하고 그런데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거리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6-4-6).

### 2)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참여자들은 다양한 대학과 전공자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치열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스트레스가 많아 상대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적은 간호학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면 주변의 아픈 사람을 도와 줄 수도 있고 진로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간호학과에 대한 매력발견과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친구들이 간호학과니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사실 일 학년 때도 공부를 별로 안하고 그 래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 평소에 주위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의료 지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간호공부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2-5-7). 다른 다양한 경험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취업준비 하는 걸 보니깐 되게 치열하게 살더라고요(8-7-2).

### 3) 간호사로서 적성 발견

참여자들은 휴학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성향 또는 행동이 간호사로서 적합한 이유들을 찾고 간호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알바하면서 사람 대하는 게 좋으니까 간호사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1-6-1). 휴학동안 알바를 하면서 저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더 어떤 게 맞는지 더 알아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공부를 시작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2-5-6).

## 5. 심력(心力)이 생김

휴학 후 복학을 결정하면서 참여자들은 비자발적인 학과선

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학과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나 후배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부담, 복학생에 대해서 부적응 학생처럼 취급하는 분위기의 적응, 휴학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은 모두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휴학은 삶의 의미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주었다.

### 1) 전공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휴학 전에는 전공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매력도 못 느낀 상태라면, 복학은 휴학을 통해 학과에 대한 재평가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면서 자발적으로 전공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

간호학은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휴학하면서 충분히 알바하고 놀면서 행복하게 보내서 지금은 놀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덜 들어요. 간호학과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는 점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줘요(1-7-4). 학과생활이 힘들다고 징징댔었는데, 제가 학과에 수업이 많고 또 시간을 쏟는 만큼 다른 학과의 친구들은 학과 이외에 것들에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고요. 취업이 힘드니까. ‘똑같이 힘든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8-7-1).

### 2)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김

참여자들은 휴학으로 인해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과 더불어 전공에 대한 부담이 컸다. 간호학과의 경우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휴학생에 대한 편견과 학년 동기가 아닌 후배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1년 정도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휴학동안과 복학초기에 컸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 당당하게 버티고 견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이미 형성된 새로운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동생들이라 다가가기도 쉽고, 이제 친구들은 위에 학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도 하니까 훨씬 여유도 생기고.. 수월한 것 같아요(6-1-6). 처음엔 뒤쳐졌다는 생각, 혼자 있고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었고(중략) 내가 뒤쳐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3-4-4).

### 3) 삶에 자신감 생김

참여자들은 휴학의 결정과 과정은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잠깐 쉬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휴학이라는 일련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고 앞으로 어려움에 대해서도 힘이 생겼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불평만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불평은 안하거든요. 휴학 이후로 내가 더 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4-6-5).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 1년 늦게 시작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나를 변화 시킬 수 있다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5-5-6).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의 휴학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본질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휴학촉진 원인은 건강 또는 가정에서의 문제, 간호학과의 분위기, 성적 및 친구관계의 문제이지만 더 근원적인 휴학 이유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휴학을 생각하는 정도는 달랐는데, 비자발적인 학과선택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간호학과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적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게다가 저학년에서 배우는 자기정체와 성찰을 추구하는 교양과목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 휴학은 임상실습 전 2학년 때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주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했지만 막상 자신의 계획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면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휴학동안 아르바이트, 여행, 학원, 해외봉사 등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대학생들과도 접촉하게 되고, 그들도 취업걱정 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간호학과를 평가하게 되고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복학은 비자발적이고 확신 없는 입학 시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자신이 자발적인 선택이자 부딪혀 불만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휴학은 자신의 적성과 학과에 대한 재발견,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의미부여 하였다.

## 논 의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간호학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학생의 휴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에게 휴학은 어떤 경험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간호학생을 이해하고 지도와 상담에 활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의 휴학 시기는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4학기 전에 이루어졌고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 다음 학기에 이루어졌다. 선행연구[24]에서는 진로 준비를 위한 휴학은 7학기에,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학은 3학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학은 5학기째에 가장 빈번했다. 반면 간호학과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저학년에서 휴학이 많았는데, 이는 외국의 간호학교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25]. 간호학과와 경우에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휴학결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휴학에 대한 경험으로 5개의 주제묶음인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 ‘정규제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 ‘휴학선택에 대한 책임감’,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 ‘심력이 생김’으로 확인되었다.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의 휴학경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Van Manen의 연구방법으로 일반 여대생의 휴학경험을 연구 한 결과[19],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다’, ‘흘려보낸 금쪽같은 시간’ 등 9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는 선택에 대한 재숙고와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이며, 이는 선행연구[19]에서 제시한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내 안의 이방인’, 그리고 ‘흘려보낸 금쪽같은 시간’과 일맥상통한다.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하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호학생들의 입학동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어릴 때 아팠거나 주변의 아픈 사람을 간호한 경험 또는 이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와 취업 관련하여 주변사람들의 권유 또는 성적과 취업을 목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았다. 자기진로를 위한 자기결정력부족과 결정을 위한 중요 인적 자원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인 선택이 중도탈락의 원인이 된다[26]. 국외의 경우 간호학생의 입학동기와 목적은 중도탈락의 중요한 예측요

인으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부터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20,21]. 자신이 선택한 과가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적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항상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개인흥미와 학업만족도가 떨어지면서 휴학으로 도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흥미와 학업만족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라는 선행연구들[5,1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나, 진로의 불투명성이 학업중단의 이유라는 Kang [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휴학사유는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 학업성적 저조 등으로 부정적 휴학사유로 분류된다[13]. 그러나 간호학생의 휴학은 학업과 대인관계, 건강상의 문제 등이 휴학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더 근원적인 본질에는 좀 더 자신답게 살고 싶다는 실존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에 단순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휴학은 자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갈구이며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휴학을 개인의 결핍과 낙담을 반영한 개인적 실패로만 간주해서는[11]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규제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은 전공에 대한 과부하, 힘겨운 친구관계, 불확실한 미래,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으로 선행연구[19]에서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다’ ‘내 안의 이방인’,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어느 순간 달라져 버린 나’와 일맥상통한다. 학교부적응과 사회적 낙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다. 실제 휴학생들은 졸업이 늦어진다는 부담감,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 학업 외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불안감,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조급함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8]. 그 외에도 휴학결정 전후로 하여 불규칙한 생활과 불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불면증, 수면부족, 변비, 소화불량, 위출혈, 체중감소, 두통 등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갈등과 위축 등 부정적 변화를 보였다[19, 26].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기에 심리적·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빈약하다. 따라서 휴학을 한 경우에도 교수는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함으로서 지지원이 되어 줄 필요가 있겠다. 교수와 수업이외의 비공식적 관계형성은 휴학 예방[21,27]할 뿐만 아니라 복학 후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휴학선택에 대한 책임감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기에 자신의 선택에 부담을 느끼면서 휴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이는 선행연구들[15,19]에서 제시한 ‘새로이 느끼는 삶의 기쁨’,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정립하게 해준 소중한 기간’과 유사하다. 휴학을

통해 다양한 경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휴학에 대한 정당화와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대학생의 약 30%가 삶의 의미추구가 좌절되어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어 삶에 대한 의미발견과 의미추구는 교육학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28]. 따라서 휴학선택에 대한 의미부여는 경험의 진실여부보다 중요하며 자기 주도적 삶을 살도록 하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으로, 학생신분에 대한 그리움, 취업 걱정 없는 학과에 긍정적 평가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적성발견이 있었다. 휴학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점점 자신의 비전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15,19]. 반면 중도탈락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준비하는 것으로[26], 휴학과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간호학과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다른 대학생들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치열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간호학과를 재평가하였다.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간호사로서 자신의 적성, 강점을 찾거나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택상황, 기대나 수준, 심리적 의미 등을 변화시킴으로 자기통제감을 가지고[29,30] 간호학과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심력(心力)이 생김은 전공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복학에 따른 새로운 관계와 수업에 대한 부담과 도전이 있지만 버틸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력은 입학 시의 수동적·비자발적인 태도와는 다른 능동적·선택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19]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실제 휴학동안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휴학이었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휴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평가를 하였다. 이는 휴학동안 어떤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보다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였고 선택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간호학생의 휴학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과 적성의 문제 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찾을 만큼 충분한 고민과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휴학의 본질은 자기 자기정체성의 갈구인 것이다. 이제 휴학은 학교부적응이라는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실존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는 새로운 조망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휴학 후 복학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방대 간호학과와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타 지역과 전문대학까지 확대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휴학동안 심리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교수는 휴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 및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교수들은 학생들의 휴학이 학교부적응의 결과라는 편견보다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줄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휴학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재학 중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수가 휴학을 고려 중인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고민해결에 대해 함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학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의 휴학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체계적인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다섯째,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이 차후 구직성과와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 결론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휴학은 전공 선택에 대한 재숙고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자기주도적 삶에 대한 갈구가 컸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부담과 힘겨운 친구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고 휴학 후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주변에서의 문제야 취급 등으로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기에 휴학의 정당성과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복학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이 있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버틸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과정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겠다.

## REFERENCES

1. Park YH. Go better university~! Year college dropouts nearly 100,000 students a year [Internet]. Seoul: Heraldcorp; 2013

- October 2. Available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2. Kim SY. An analysis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support programs effecting on student retention. *J Career Educ Res.* 2007;20(1):111-41.
  3. Kim YN. An analysis of factors of influence on college student withdrawal. [dissertation].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137 p.
  4. Lee BS. An exploratory analysis of institutional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 withdrawa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03;41(2):135-54.
  5. Kim KH.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university students' halting their academic studies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J Korea Content Soc.* 2011;11(8):378-87. <http://dx.doi.org/10.5392/JKCA.2011.11.8.378>
  6. Hoyt JE, Winn, BA. Understanding retention and college student bodies: difference between drop-outs, stop-outs, opt-outs, and transfer-outs. *J Stud Aff Res Pract.* 2004;41(3):395-417. <http://dx.doi.org/10.2202/1949-6605.1351>
  7. Suk NJ. The age in stop-out of million college students: Blocked the growth of Korea [Internet]. Seoul: The Chosun.com; 2012 December, 7. Available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
  8. Lee HR. 3 out of 10 college students, consideration of stop-out for tuition fees[Internet]. Seoul: The Kyunghyang Shinmun; 2013 August 26.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
  9. Kang SH.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Educ Eval.* 2010;23(1):29-53.
  10. Pascarella ET, Terenzini P. Predicting freshman persistence and voluntary dropout decisions from a theoretical model. *J Higher Educ.* 1980;51(1):60-75. <http://dx.doi.org/10.2307/1981125>
  11. Tinto V.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 Educ Res.* 1975;45(1):89-125. <http://dx.doi.org/10.3102/00346543045001089>
  12. Newton SE, Smith LH, Moore G.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admission policies: promoting success or facilitating failure? *J Nurs Educ.* 2007;46(10):439-44.
  13. Lim E, Kwak YY. Female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J Vocational Educ Res.* 2011;30(2):231-48.
  14. Kim HD, Kim JH. Korean college student stop-out experiences & employment outcomes.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aper presented at: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onference on Employment Panel; 2013 June 4; Seoul, Korea.
  15. Kang SH (student reporter). The gains and losses of stop-out [Internet]. Seoul: HanKyoung Recruit; 2012 December 5. Available from <http://www.hkrecurit.co.kr/>
  16. Kruglanski AW, Higgins ET. *Soci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2007. 516 p. (Baumeister RF, Schmeichel BJ, Vohs KD. Self-regulation and the executive function; The self as controlling agent. A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2nd ed.).
  17. Duckworth AL, Seligman MEP. Self-discipline outdoes IQ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s. *Psychol Sci.* 2005;16:939-44. <http://dx.doi.org/10.1111/j.1467-9280.2005.01641.x>
  18. Tangney JP, Baumeister RF, Boone AL.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 Pers.* 2004;71: 271-324. <http://dx.doi.org/10.1111/j.0022-3506.2004.00263.x>
  19. Kwen YJ, Kim SJ, Kang GS, Lee SY, Jin OS, Han JH. The study about experiences of the stop-out of female college students. *J Nurs Acad Assoc Ewha Womans Univ.* 2000;33:168-92.
  20. Newton SE, Smith LH, Moore G, Magnan M. Predicting early academic achievement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J Prof Nurs.* 2007;23(3):144-9.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6.07.001>
  21. Hopkins TH. Early identification of at-risk nursing students: a student support model. *J Nurs Educ.* 2008;47(6):254-9. <http://dx.doi.org/10.3928/01484834-20080601-05>
  22.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6 p.
  23.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24. Chu HJ, Cha SH.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ur-year college students' stop-out. *J Educ Adm.* 2011;29(1):277-93.
  25. Andrew S1, Salamonson Y, Weaver R, Smith A, O'Reilly R, Taylor C. Hate the course or hate to go: semester differences in first year nursing attrition. *Nurse Educ Today.* 2008;28(7):865-72. <http://dx.doi.org/10.1016/j.nedt.2007.12.007>
  26. Choi MS, Kang JH. Qualitative study about experience of students' dropping out. *Korean J Youth Stud.* 2008;15(7):203-25.
  27. Moseley LG, Mead DM. Predicting who will drop out of nursing courses: a machine learning exercise. *Nurse Educ Today.* 2008;28(4):469-75. <http://dx.doi.org/10.1016/j.nedt.2007.07.012>
  28. Ahn JS. The quest for meaning of life and its implications for pedagogy: a study of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Viktor Frankle's. *J Educ Res.* 2000;16:129-49.
  29. Trope Y, Fishbach, A. Counteractive self-control in overcoming temptation. *J Pers Soc Psychol.* 2000;79:493-506. <http://dx.doi.org/10.1037//0022-3514.79.4.493>
  30. Fishbach A, Trope Y. The substitutability of external control and self-control in overcoming temptation. *J Exp Soc Psychol.* 2005;1(3):256-70. <http://dx.doi.org/10.1016/j.jesp.2004.07.002>